

은혜가 독이 될 수도!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오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래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열왕기하 20:1-21:1]

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회사를 물려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뭡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해 가면서 큰 회사를 일구어 왔는데 이 아이가 회사를 물려받아 말아 먹지 않고, 잘 키워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제일 큰 걱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꼭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얘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은금이 많아졌을 때, 네가 잘 나서, 네 능력이 뛰어나서 이 많은 것을 모으게 되었다고 재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거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많은 징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받은 그가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잘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선택되지 아니하고 왕으로 뽑히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도 처신을 잘못하면 은혜 받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잘 나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만사형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은혜를 쏟아 부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가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동일한 성령의 계시가 바울과 바울을 맞이하던 여러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그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체포되고 갇히게 된다는 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갇히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바울은 동일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나는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봅시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악한 왕에게서 굉장히 선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선한 왕이었지만 그 뒤를 잇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고 이 선한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악했다고 자식이 반드시 악하다는 법이 없고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앞드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역사가 잘 보여 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지킵니다. 그리고 주상이나 독상, 산당 등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에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나았던 모세의 놋뿔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외에 우상처럼 받들어 모시던 것들은 전부 제거해 버렸으니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왕 노릇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선지자 이사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버지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보기 드문 선한 왕이 된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새겨들은 아들은 아주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

게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산헤립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전멸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절에 자기 자신도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앗수르 기록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주였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했다는 뜻입니다. 산헤립이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갔다가 결국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정도였으니 앗수르가 보기에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놓여 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 같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믿음 좋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나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 형제나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 때는 무조건 고쳐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너무 신앙 좋은 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앙 좋은 기도는 자기를 향해서 하고 형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살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를 앞두고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반칙을 한 겁니다. 왜 죽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느냐 말입니다. 왜 가르쳐 주셔요? 이유는, “빨리 기도하고 매어 달려라. 그리고 너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은근히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앗수르와 대항해서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는 왕으로 히스기야 만한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짐작권대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나라를 이끌어 갈만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앗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죠. 이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죽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귀뜸을 하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것 중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 해 보셨나요?

공중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진짜 저 분이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왔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지난 일주일 뒤돌아보면 죄만 지은 것은 아니죠? 죄도 조금 지었다고 칩시다. 죄만 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자신 없어요? 교회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애를 썼는데 어쩌다 보니 성질에 받혀서 이런 일도 하나 했고 저런 일도 하나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사셔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가?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쳐 주겠다고 하시면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말이 많아요. “정말 내 병을 고쳐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려면 확실한 무슨 징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도 좋지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신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비슷하게만 맞으면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보다.” 이러지 말

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고 “아멘” 하는 것도 잘하는 신앙입니다마는 성경은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지를 스스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뒤집어서 ‘한 번 더!’ 이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할 터인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증거라도 구해 봐라. 어떤 증거라도 보여 주겠다. 이러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조차 아하스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뽐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시험하다시피 뽐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해 줄까? 뒤로 나가게 해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니, 어찌면 쉬울지도 모르니까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10도는 혹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태양계의 궤적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가 없더라. 어디 갔나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 여호수아 시절에 해가 종일토록 안 내려 갔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으니 23시간 20분, 나머지 40분 어디 갔나?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10도 물러갔다고 하더라.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면 시간상으로 40분 맞습니까? 하루, 24시간에 360도니까 태양은 1시간에 15도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도면 40분이 맞아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서 잃어버린 40분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뒤로 40분 물러갔으니까 물러갔다가 다시 오면 40분이 될지 80분이 될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하스 시대의 해시계의 10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구 자오선의 ‘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해시계는 해가 떠있을 동안만 그림자를 재는 것이니까 보통 10칸 아니면 12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10칸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거의 온종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걸, 합부로 성경을 보니까 10도 물러갔다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40분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360도의 10도는 뒤로 물러나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시는데 그렇게 희미한 증거를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거의 온종일 뒤로 물러 간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끌어들이어 설명하는 말 중에는 믿기 어려운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아니, 죽을 사람한테 “너, 곧 죽을 거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죽을 준비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 했더니 툭커덩 들어 주시면서 이런 기적까지 보여 주시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칙이다 싶을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의 목숨을 구해 주시려고 이러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6절에 보입니다.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네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중간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네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 하리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는 겁니다.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이전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금을 벗겨서 공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다 받아먹고 얼마 후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해선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겠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잘못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교만이거나 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에 12절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다'라 사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보여 줄 것 안 보여 줄 것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줘 버린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이런 짓을 한 것이냐?"고 책망하는데 이게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약간 짐작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 때 가장 강한 나라는 앗수르입니다. 이 때 바벨론은 앗수르에 쫓겨 가서 한 쪽 구석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비유컨대 중국 본토를 다 잃어버리고 대만에 쫓겨 가 있던 장개석 군대와 비교 비슷한 형국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앗수르를 밀어내고 큰 나라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은 저 멀리 쫓겨 가 있는 조그마한 나라, 앗수르에 밀려 맥을 못 쓰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고 히스기야는 앗수르와 붙어서 당당히 앗수르 군대를 물리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저 먼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큰 소리 칠 만도 합니다. 당당히 앗수르와 맞붙어서 그들을 물리친 히스기야니까 바벨론 왕 정도는 만만하게 볼만도 합니다. 거기에서 온 사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 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놓여났으며, 어떻게 해서 앗수르 군대를 물리쳤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셨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는 이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거기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제발 좀 티 내지 마시다. 그렇죠? 인물 잘난 것, 자기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인물 잘난 데에 자기가 보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물 잘 냈다고 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키 작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행동입니다. 키 큰 것 자기가 잘 나서 컸어요? 누구 탓인데요? 부모 탓이잖아요. 키, 인물, 남 보기에 좀 그럴듯하거든 조금 낮추어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배운 것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아는 티 내지 말고 내가 어쩌다가 남들보다 더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려니 하고 낮추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돈 좀 더 많이 가지게 됐으면 티 내지 말고 잘 쓰세요. 돈 많으면 얼마나 쓸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티 내지 말고요. 쓰는 사람이 더 겸손하게 잘 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21장 1절을 20장과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았던 기간이 15년이잖아요. 이 말대로만 한다면 히스기야가 살아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때 태어난 므낫세 라는 왕이 얼마나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선한 왕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그 때 죽었더라면 이 악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

라면 그냥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 아니냐? 누가 그렇게 묻기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아들마저 얻었으니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하는데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서 죽을 목숨을 구해 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들로 잘 키워어야 하는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과 꼭 반대 짓을 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 전승에, 전해 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톱에 잘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 므낫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면 유다를 말아 먹은 왕입니다. 므낫세 뒤에 선한 왕이 또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선한 왕, 요시야가 므낫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 되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더라, 므낫세 때문에!

짐작입니다마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때 태어난 아이를 너무너무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 보겠다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나빠 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강압적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뿐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식들이 반발하는 경우를 봅니다. 밖에서도 모범생이고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생인데 가슴에 어떤 응어리들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런 응어리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로 잘 키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모르고 몰라도 아들을 강압적으로 키웠다가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된 게 아닐까요?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키우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 결국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죠. 부모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에게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목사 아이, 장로 아이는 조금 특별합니까? 아이들은 똑 같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고 돌봐 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좋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강압적으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뒀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아하스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이 선한 왕 아래 진짜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이 틀림없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더라. 아이들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만한 일이 많이 따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전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고쳐야 할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질은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고칠 것은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고 나갈 그렇게 타고 났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이것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고쳐야 할 성품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으면 스스로 결단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긴 종에게는 많은 것을 찾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사람에게 분명히 “너, 이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받은 은혜 티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교만하게 굴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 이단의 괴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 종종 나옵니다. 니골라는 초대 교회가 뽑았던 일꾼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했던 교훈이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상하게 변해서 초대 교회의 악한 이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보세요, 은혜 많이 받아서 나라가 평온해졌을 때에 실수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도 그렇고 솔로몬의 타락도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먹고 살만 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낙에 취해서 제 멋대로 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애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갈 것인지? 주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은 없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